

LG생활건강 조세 정책

제정 : 14년 5월
개정 : 23년 4월

LG생활건강은 “고객의 이익을 확보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확대하며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세법 준수 및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의 필수적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세무 원칙과 정책,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금 납부와 신고를 위하여 당사의 세무담당 임직원은 과세당국과의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사전 세무 검토를 수행하며 수행하며, 조세 전략 및 정책을 포함한 사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내

*ESG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ESG 위원회 규정-제3조 위원회 권한, 제제 10조 부의 사항 개정함.

‘핵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 준법 통제에 관련된 중요사항’ 추가)

조세 원칙

조세 법률 및 규제 준수

01

- LG생활건강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외 법인의 직·간접 세법 등의 충실한 준수를 통해 조세 리스크를 관리하며, 책임 있는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LG생활건강은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이전가격 정책 준수

02

- LG생활건강은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해외법인과 거래 시 국내 세법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 기업 원칙에 부합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국 과세당국 간 이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제도를 통해 사전에 이중과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에 따른 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국가 간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조세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가에서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소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을 실효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등 조세관할권이 낮은 지역으로의 가치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세 원칙

조세피난처 사용 금지

- LG생활건강은 조세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조세 회피 목적의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체가 없는 거래 금지

- LG생활건강은 실질적 사업 목적 등 상업적 실체가 없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리스크 관리

- LG생활건강은 법인세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보고서 및 주석 사항에서 법인세 비용 산출 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 비용 구성 내역 및 유효세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주와 국가를 위한 조세 리스크 감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는 등 조세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